

## 우즈베키스탄 동포 한국어 교사 연수

정 호 성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1. 개 요

이 글은 우리 원의 '한국어 전문가 해외 파견' 사업의 하나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등룡 교수와 함께 1995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2주일 간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연수의 내용과 현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현지 동포들의 생활상과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출장 일정

6월 28일(수) 오후 3시 30분, 이등룡 교수와 함께 김포공항 제1청사에서 우즈베키스탄 항공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아시아나 창구에서 탑승 절차를 밟았다. 우리 일행은 마침 한국에 잠깐 다니러 왔다가 함께 출국하게 된 정만섭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탑승 대기실에 들어갔다.

놀라웠던 것은, 항공권에는 좌석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시골 직행 버스처럼 아무 자리나 먼저 앉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대기실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탑승구를 나가 버스로 비행기 앞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먼저 비행기에 오르려고 아우성이었다. 국제선 항공편에서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지연된 6시 50분경 이륙했다.

약 8시간 반 동안의 지루한 비행이었으나 서쪽으로 지는 해를 따라갔기 때문에 오랫동안 석양을 감상할 수 있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약 3번의 음료수와 2번의 기내식이 나왔다. 자는 사람도 깨워서 식사를 주는 우즈베키 여인의 승무원은 자기 일에 충실해 보이기도 했으나, 나중에 귀찮게 할까봐 미리 주어버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현지 시간으로 11시 30분경에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한국교육원의 직원들이 밤늦은 시간인데도 나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공항에서 입국비자를 받고, 짐을 찾아 통관하는데 3시간이나 소요되었다. 특이한 것은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고액보다 출국할 때의 소지액수가 많으면 그 차액을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

6월 29일 새벽 3시경에 공항을 나와서 정만섭 원장 덕에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하고 우리의 민박집으로 왔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고 있었다. 주인 할머니(조선아 씨, '낙동강'으로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인 조명희 씨의 딸)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할머니께서 미리 준비한 찜만두와 감포트(과일 끓인 물)를 먹은 뒤에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이날 오후 한국교육원의 김이리나, 강블라지미르와 함께 우리 일행은 타슈켄트 시내를 구경했다. 맨 처음으로 예술박물관에 갔었으나 마침 수리중이라 문을 열지 않아서, 춤 백화점과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규모의 노상서점을 구경하였다. 우리는 물냉면과 막국수 중간쯤 되는 국수로 늦은 점심을 먹고는 나보이 동상과 우정의 궁전 등을 잠깐 관람하였다. 워낙 더운 날씨라 넓은 광장 한복판에서 관광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다. 곧바로 근처의 서점을 찾았으나 어학에 관련된 책은 거의 없었고, 더구나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던 북한책은 한 권도 없었다. 우리는 타슈켄트 시내 지도만 한 장씩 사고는 집으로 향했다.

6월 30일(금)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오전 9시에 한국어 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우리 파견자와 타지브 타슈켄트 주 교육감, 정 원장과 교육원 소속 직원들, 그리고 수강생 약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강의실 전면에는 '환영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 전문가 파견 한국어 연수'라는 현수막으로 우리 파견자 일행을 맞이했다. 개강식은 박기성 교수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양국 국가 제창, 정 원장과 타지브 교육감, 그리고 이등룡 교수의 인사말로 진행되었다.

9시 30분부터 이등룡 교수의 언어 예절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등룡 교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말, 호칭, 지칭어 등과 그 말의 어감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수강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10시 40분부터 문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 강의실에는 학생반, 교사양성반, 교사반의 세 부류가 모두 모여 있었다. 학생반의 젊은이들은 이제 한국어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교사양성반은 2달 반째 한국어를 배운 정도, 교사반은 한국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구사하는 수준이었다. 이렇듯 수강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천차만별이어서 강의 수준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는 수 없이 교사양성반을 기준으로 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하나의 문법 용어가 나오면 그 개념부터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러시아어에 대응되는 개념의 용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후에 교육원 직원인 강블라지미르와 함께 한국에서 미리 부친 연수교재를 찾으러 공항 세관에 갔다.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한참씩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얻은 대답은 서류를 새로 꾸며오라는 것이었다. 한국교육원은 세관의 회사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다음날은 토요일이므로 회사등록증과 한국대사관의 확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다음 주 월요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7월 1일(토) 오전에는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뿔리따젤 콜호즈를 방문했다. 뿔리따젤에는 고려인이 현재 약 5,000명 정도 거주한다고 한다. 농장의 중심에는 박물관과 극장이 있고, 극장 입구의 한 방에는 '실로암 진료소'라는 의료실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미국에서 의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정착했다는 '최강' 씨(교회 장로)와 그 부인이 동포들에게 무료 진료를 베풀고 있었다. 모든 의료자재와 약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무료로 보내준다고 한다. 이 극장은 일요일에는 교회로 쓰이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김병화 농장에 거주하는 장에밀리아 선생님(94년 피초청자)의 집을 어렵게 찾아갔다. 엠마(에밀리아의 애칭)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반갑게 맞이했고 우리는 그 집 마당에서 기른 능금과 옥수수를 먹으며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엔 올해 우리 원의 피초청자인 최지나이다 선생님이 원장과 우리 파견자를 식사에 초대했다. 최 선생은 타슈켄트에서 약 30분 거리인 치르치크 시의

부교육감으로, 한국교육원의 교사양성반에서 3달째 수강중이었다. 오후 4시경, 최 선생의 다차(별장)에 도착해서 즐거운 식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7월 2일(일) 오후에는 타슈켄트 구거리에 위치한 스타르코르드 바자르(철수 시장, '철수'는 '더러운 물'이라는 뜻)를 둘러 보았다. 이곳은 우즈베크인들의 전통 시장으로 이 지방 고유의 수공예품, 잡화, 과일, 음식거리 등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양고기와 소고기, 내장 등을 판매대에 그냥 죽 늘어놓고 파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곳은 날씨는 덥지만 건조하여 우리 나라에서처럼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돼지고기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이슬람 신봉자인 우즈베크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타의 다른 민족들은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꾸일룩 시장과 같은 여러 민족이 모이는 시장에서는 돼지고기를 판다고 한다.

7월 3일(월) 오전 9시부터 강의가 진행되었다. 점심 식사 후 원장과 함께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서건이 대사를 만나 보았다. 대사관은 우즈베크 외무부 소속의 한 건물에 자리잡고 있었다. 대사관에 가기 전까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으나, 대사와 면담하고 여러 영사들의 존재를 확인한 후에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점을 잠깐 들렀으나 이곳도 역시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책은 없었다. 그리고는 한국어 연수 교재를 찾으러 미리 준비하고 있던 교육원의 강블라지미르와 공항 세관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도 뭔가가 부족하여 헛걸음을 쳤다.

7월 4일(화) 어제와 같이 오전 9시에 강의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교육원에서 일부 남아있던 수강생들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사랑해 당신을, 개똥벌레 ……). 그리고는 강블라지미르와 공항 세관에 갔으나 또 헛수고였다. 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서류를 요구하며 며칠씩 시간을 끄는 세관 관계자들의 태도는 좋았던 타슈켄트의 이미지를 잔뜩 흐려놓기에 충분했다. 교육원 직원들은 며칠째 책을 찾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파견자를 보고는, "이곳의 행정은 다 그렇게 느긋하고 오래 걸립니다. 우리도 처음에 이곳에 와서는 짜증도 많이 냈지만 지금은 느긋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위안을 해 주었다. 이런 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폐단인 근무자들의 태만과 무책임한 행정의 한 보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월 5일(수) 9시부터 강의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김병화 농장의 장에밀리

아 선생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일정 없이 교육원에서 여러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김병화 농장은 주로 채밀과 면화를 가꾸는 농장으로 지평선으로 둘러쳐진 곳이었다. 우리는 차로 드넓은 농장을 한바퀴 돌아본 다음 저녁상에 앉았다. 장 선생님은 상다리가 휘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음식을 많이 장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식사 후, 마당의 평상에 앉아 보드카와 차이, 옥수수과 참외, 수박 등을 먹으며 엠마의 차고 넘치는 정과 질박한 웃음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7월 6일(목) 교육원에 와 보니 그렇게 기다리던 교재를 어제 오후 늦게야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반가운 마음에 교재를 나누어주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교육원장은 '한국어 연수 교재'를 다른 연수에서도 사용하면 좋겠다며 수강생들에게 이미 나누어 준 교재를 회수했다. 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원 운영자와 수강생들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오후에는 전통 공예품 박물관을 구경하고, 교육원 직원인 '김이리나'의 시골 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도 너무 많이 차린 음식에 일단 기가 질렸고, 이웃의 동포 어른들이 권하는 보드카와 꼬냑으로 파견자는 녹초가 되었으나, 같은 민족으로서의 따뜻한 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7월 7일(금) 이날 오전 강의로 우리의 강의 일정은 모두 끝났다. 오후 1시 30분부터 교사양성반과 교사반의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수료식에는 동방학대학의 이용성 교수(한국 교육부 직원)와 교육원 직원들, 우리 파견자 등이 참가하였다. 약 70여명의 수강생들이 교실을 꽉 메우고 있었다. 수료식은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교사반과 교사양성반 각 반의 1~3등에게 수료증과 푸짐한 상품(주로 한국어 관련 서적)을 전달하였고, 수강생들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특히 한 수강생은 3달 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이라며 더듬거리며 인사말을 마쳐 많은 웃음과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수강생들은 돈을 모아 강사들과 우리 파견자들에게 선물까지 준비하는 따뜻한 정성을 잊지 않았다. 수료식 후 수강생들이 점심을 준비하여 식사와 노래 등을 즐겼다.

이날 저녁에는 서울식당에서 우리 파견자 주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 동방학 대학의 김문욱 한국학부 학장과 이용성 교수, 그리고 한국교육원의 모든 직원 등을 초대하였다. 서울식당은 중앙에 무대가 있어 가수의 노래와 무회의 춤을 즐길 수 있는, 우리의 극장식 식당과 비슷한 곳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고급 음식점인 이 곳은 한식 요리의 모든 양념을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일인당 \$20~\$30 정도씩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는 음식이 그리 푸짐하지는 않았다.

7월 8일(토) 한국어 연수 개강식에 참석했던 따지브 타슈켄트 주교육감의 초대로 시르다리아(강이름) 근처 타슈모래란 곳의 다차(별장)에 갔다. 강가에 죽 늘어서 있는 다차는 우리의 방갈로처럼 삐죽한 지붕에 간이 침대 서너 개와 에어컨 등이 내부의 전부였다. 다차 앞 나무 그늘에는 우리들을 맞을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타슈모래 지방의 교육감과 부하 직원들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으로는 우리 파견자와 정만섭 원장 가족, 따지브 교육감 가족, 타슈모래 지방의 동포 교장과 교육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오전 11시경부터 식사가 시작되었다. 양고기 샤슬릭과 과일, 약채, 보드카와 꼬냑, 그리고 콜라, 환타 같은 음료수도 있었다. 이들 우즈베크인들의 식사 예절은 우리로서는 아주 독특한 것이었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주인 쪽과 손님 쪽 양쪽에서 한 명씩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고는 '도드나'(건배)를 청한다. '한마디'는 주로 '만나서 반갑다. 이곳을 집처럼 편안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즐겨달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자' 등이었고 또한 참석한 사람들 개개인을 들어가며 각각의 장점과 자기가 신세진 점,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항 등을 얘기하며 서로를 부추기는 내용이였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도드나'를 청하면 모두 일어나 건배를 한다. 첫잔은 무조건 비워야 하며 도드나를 외치면 마시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한다. 술을 잘 못하는 파견자로서는 이 '도드나'가 현지에서 들은 가장 무서운 말이었다. '한마디'와 '도드나'는 돌아가면서 수시로 계속되었다. 나중에는 '한마디' 거리가 떨어져 앞에 한 말을 또 꺼낼 수밖에 없었고, 호기있게 '도드나'를 외치기도 했다.

오후 6시경에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양고기 요리로 서너 차례의 음식상이 차려졌다. 양고기 샤슬릭, 양고기 국, 삶은 양머리 고기, 비슈바르막(카자흐스탄 요리로, 익힌 만두피 같은 밀가루에 삶은 양고기를 싸서 손으로 집어 먹는 음식) 등과 수박, 참외, 자두, 포도 그리고 술과 음료수, 마른 안주와 과자 등등.

이렇게 그들의 손님 접대는 하루 종일 계속되는 말과 음식의 향연이었다.

7월 9일(일) 사마르칸트로 관광을 떠났다. 교육원의 김이리나가 동행하여 우리를 안내했다. 사마르칸트에는 미리 연락된 고려문화인협회중심의 회장 '이알렉세이'(70세)와 부회장 '최블라지미르'(57세)의 친절한 안내로 아주 편한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그 유명한 티무르 칸의 묘소와 비비하눔의 궁전, 위대한 왕

이자 천문학자이었던 울룩 벼의 천문대, 그리고 이슬람 전수 학교였던 레기스 탄 등을 둘러보았고 시장도 구경하였다. 대부분의 유적지마다 아름답고 애뜻한 전설들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슬람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거기에 얽힌 전설은 현지의 맑은 날씨와 함께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7월 10일(월) 오전에는 교육원에서 8월중 피초청자의 항공료를 미리 지불하고 여타의 일을 처리했다.

점심에는 수강생 몇 명이 우리를 한 아파트로 초대하였다. 이들은 음식 장만을 위해 하루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으며,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등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점심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와 짐을 꾸리고는 조선아 할머니께서 저녁 식사로 손수 만드신 물만두와 꼬냑을 들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저녁 8시경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해 보니 교육원 직원들과 엠마가 이미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엠마는 선물이라며 참외와 호두, 참쌀가루와 꿀, 그리고 면화로 만든 겨울용 스타킹을 잔뜩 들고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정만섭 원장과 한국교육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짐검사와 탑승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오후 11시 30분경 이륙하여 다음날 아침 11시 30분 경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 3. 동포들의 생활상

우즈베키스탄의 동포들은, 다른 중앙아시아에 산재해 있는 동포들의 경우와 같이, 대개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원동(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열차로 실려와 갖은 고생 끝에 겨우 정착할 수 있었던 어두운 과거를 지니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개 2~3세들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은 거의 모르며 또한 한국어 구사 능력도 아주 낮은 형편이다. 이들은 강제이주 후, 현지에 적응하기 위하여 러시아어를 피눈물나게 익혔다고 하며, 그 결과 요즘은 동포들 가운데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들은 러시아어를 모어로 생각하며, 생활이나 사고 방식도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러시아 식으로 바뀌고 있다.

현지 동포들은 1988년 이전까지는 한국을 '거지가 들끓는 못사는 나라, 데모현장에서 학생과 경찰이 싸우고 죽이는 등 사회가 불안한 나라' 쪽으로 알았다고 하고 더구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하

지만 88 서울 올림픽 이후 각종 마스크의 보도로 한국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대략 20만 정도라고 하며 타슈켄트 주에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동포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은 대부분 집단 농장(콜호즈)으로서, 타슈켄트 주위에서는 빨리따젤 콜호즈와 김병화 콜호즈를 예로 들 수 있다. 빨리따젤에는 예전엔 약 20,000명의 한인이 살았으나 현재에는 약 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인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한인 2~3세들이 힘든 농장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소수 민족의 약점을 절감하고 원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중앙의 통제 아래 여러 민족들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이후 우즈베크 민족의 특색으로 소수 민족들은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즈베크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얻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민족이라는 멸시를 당하는 등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 독립 이후, 많은 유태인과 러시아인들, 그리고 소수 민족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이루어 놓은 사회적 지위와 가옥, 가축 등의 재산을 버리고 각 민족의 원래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떠났다고 한다. 특히 국가 시설물의 고급 기술직을 장악하고 있던 유태인과 러시아인들이 고국으로 떠남에 따라 기계의 유지, 보수가 적절히 되지 않아서, 통상망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고 또한 문을 닫은 공장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요소가 들어옴에 따라 사람들은 그 동안 다니던 국영직장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개인 사업이나 외국인 무역회사, 즉 “비즈니스”(현지인들은 이렇게 부른다.)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동포들은 워낙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회사의 주변적인 일을 도와주며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한 중국인 회사에 다니는 동포 운전 기사 월급이 \$200(6,000숨) 정도, 노동자 월급이 1,500숨, 의사 월급이 1,000숨, 연금은 개인의 근무 연한과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400~1,000숨(\$13.4~\$33.4)정도, 농촌에서도 이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려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위하여 도시로 모여들고 있고 이로 인하여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과 카리모프 우즈베키스

탄 대통령의 방한 등으로 우호적인 양국 관계가 이뤄진 이후 우즈베크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또한 동포에 대하여도 우호적인 태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 파견자가 길거리를 걸어가다 때 우즈베크인 젊은이들은 우리를 알아보고 “유즈노 카레이스키 넘버 원” 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곤 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993년에 한국교육원이, 1994년에는 한국대사관이 설치되었고, 현재 대우, 갑을 방적 등의 대기업과 많은 국내의 무역상들이 현지에 진출해 있다. 그리고 우즈베크인들의 한국 산업 연수(한국에서 산업체 취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한 번에 약 200명의 산업 연수생들이 한국교육원에서 기초 한국어 회화를 배우고 있으며, 그 지원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포들에게 취업과 한국 방문의 기회가 많아지는 등의 계기로 인하여 한국어 사용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동포 사회에서는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 4.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실태

현지 동포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우리 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고행을 많이 간직한 함경도 방언이다. 또한 일부 어휘는 의미가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동포들은 아무리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습득해도 강한 함경도 악센트를 버리지 못하며, 조사나 어미 등은 거의 함경도의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원과 같은 한국어 교육 기관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이들이 사용해 오던 함경도 방언은 점차로 자취를 감추고 새로 배운 한국의 표준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각종 교재가 현지에 보급되면서 고어형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그들의 함경도 방언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지에 대한 방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파견자가 짧은 시일동안 한국어를 강의하고 동포 몇 명과의 대화에서 그들의 언어생활 전반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음의 예들은 40대 후반 이후의 동포들이 사용하는 함경도 방언으로, 요즘 새로 한국어를 배우는 젊은이들은 이런 함경도 방언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

예) 내 밥으 먹구서리 핵교에 가가요.

선생님은 한국어 무스그 일으 하요?

어시 (부모) / 부르기(부루 ; 상추) / 서방가다(장가가다)

알랑습등? (안녕하십니까?) / 아습 차이쓰꾸마(고맙습니다)

애매꾸마? (할머니 오셨습니까?)

그리고 언어예절면에서도 각종 호칭·지칭어는 거의 소멸하고 직접 이름을 부르고 있다. 자식들은 부모를 “빠빠, 마마”로 러시아 식으로 부른다고 하며, 부부 간에는 이름을 부르며, 시부모, 장인·장모, 사돈 등의 관계에서도 직접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

동포들은 파견자와의 대화에서 자신들의 함경도 방언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표준어를 듣기 좋고 부드럽다고 하며 표준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 5. 한국교육원의 활동 내용

교육부 소속의 한국교육원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파견된 원장과 해외 파견 교사 등 2명이 파견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에 능통한 현지 동포 2명을 고용하여 교육원의 행정 업무와 한글 기초 강의, 통역 등을 맡기고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동포 2명을 교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맡기고 있다. 이들은 한국어 기초 문법과 회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민속 등도 강의한다.

한국교육원에서는 수강생에 따라 학생반, 직장인반, 교사양성반, 교사반(교사 재연수), 산업연수반 등 운영하고 있다. 학생반은 한국어 기초와 한국 문화를 강습하는 기초 학습반으로 대개 초급학교 재학생이나 대학생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업과 함께 한국의 춤과 노래, 민속 등도 함께 익힌다.

교사양성반을 이수하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다. 대개 3개월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한국교육원장이 각 주의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직 교사들을 3개월간 한국교육원에 출장 형식으로 파견하여 한국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오는 수강생들을 위하여 한국교육원에서는 왕복 교통비 전액과 숙박비의 일부를 제공해 준다. 교사반에서는 현직 한국어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반의 수강생들은 다른 반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월등한 편이다. 이들 학생반, 교사양성반, 교사반에서는 한국어 기초 회화와 문법, 한국

의 역사, 민속 그리고 문학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기초 회화와 연습은 동포 교사들이, 문법과 역사·문학 등은 원장과 파견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교사양성반과 교사반의 연령층은 대부분 40-50대의 여자 교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반은 물론 젊은 학생들이고 교사반이나 양성반에도 젊은 층이 몇 명 있지만 대부분 40-50대의 여자들이고 60대도 몇 명 있었다.

산업연수반은 한국에 취업할 '산업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회화와 한글 등을 교육한다. 동포들도 있지만 우즈베크인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한다. 한번에 200명 정도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진출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한국 교육원의 '산업연수반'을 거쳐간다고 한다.

한국교육원은 각종 교육지원 사업으로 한글학교가 개설된 일반 학교에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고(교재, 한복, 컴퓨터 등), 현지의 각 지방 교육처를 한국의 각 시도 교육청과 자매 결연을 맺도록 중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내 각종 기관의 초청자 선발 의뢰(국립국어연구원,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류재단 등)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원 주최로 현지 동포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요 부르기 대회, 민속춤 경연대회' 등을 1년에 한 차례씩 열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원장과 파견 교사 두 명이 꾸려나가는 체제이어서 담당자들에게는 힘든 업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육원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전공자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재 원장은 국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지만, 파견 교사는 공대 출신의 교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원장을 포함한 2명의 교사로는 체계적인 교육도 힘들 뿐더러, 많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6. 파견 활동 내용

파견자의 강의는 교사양성반과 교사반의 수업 일정 후반 일부분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반은 1개월, 교사양성반은 3개월의 일정으로 강의가 이미 진행중이었으며, 우리 파견자의 강의 일정은 이들의 교육 일정 마지막에 잡혀져 있었다. 평소에 이 두 반은 따로 수업을 받았지만 우리의 파견 교육에서는 합반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강의 일수는 6일이었고 한 과목당 1시간 30분씩으로 오전에만 강의가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타슈켄트의 더운 날씨 때문에 (35°C~40°C), 교사와 6~70명의 수강생이 강의실에 한데 모여 수업을 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수업중에 수강생들은 한 손으로는 수업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기에 바빴다. 강의실에는 창문형 중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소리만 요란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았다.

강의 내용은 이등룡 교수가 언어 예절을, 필자가 기초 문법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맞춤법과 표준어에 대한 내용도 약간씩 다루었으나, '어문 규범의 보급'이라는 애초의 파견 목적은 현지 사정상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수강생 대부분이 한국말 구사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한글 사용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같은 규범적인 내용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강생들이 이해하기에도 힘든 내용이기 때문이다.

'언어 예절'에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물음과 응답의 관계를 설정하여 각각의 경우를 설명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했고, '문법'은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례를 들어가며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어를 배우는 많은 외국인들과 같이, 수강생들은 대체로 경어법 사용을 극히 혼란스러워 했으며, 특히 상대존대법의 개념은 거의 없어 보였다. 이들은 자기의 일에도 '-시-'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고의 상대존대법인 '합쇼체'를 사용했다. (내가 오셨습니다. /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파견자의 '그렇지요, 이것은 뭐죠?' 등의 '해요체'와 '해체'를 아주 낯설어 했다. 주체존대법과 상대존대법을 제대로 구사하는 수강생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또한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수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그 개념이 달라서, 수강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의(혹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강사가 사용한 용어와 그 개념이, 파견자의 그것과 다름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했다. (의존 명사와 불완전 명사, 대과거(-었었-)의 존재 여부, 미래완료의 존재, 미래시제의 존재 여부 등) 이런 현상은 현재 학교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여러 용어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로 인하여 통일되고 정련된 한국어 교재가 필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강생들이 이용할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교재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번듯한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 수강생

은 없는 것이다. 수강생들은 교사가 그때 그때 준비한 1~2장짜리 인쇄·복사물이 교재의 전부여서, 교사의 판서를 서툰 글씨로 공책에 옮겨 적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원이 기증한 한국어 연수 교재(문법 발췌본)와 여러 서적들은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한국교육원장의 요구로(한국교육원에 비치하여 앞으로의 연수에서도 수강생들이 볼 수 있게 한다고 함.) 수강생들은 수업 시간에만 교재를 보고 연수가 끝난 후에는 교재를 교육원에 반납하는 등 교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원과 수강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은 아주 진지한 태도로 강의에 임했으며, 우리 파견자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필기하며 되묻는 등 한국어 습득에 대한 열의는 타슈켄트의 더운 여름 날씨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 7.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타슈켄트에는 한국교육원과 광주한글학교가 동포들이 접할 수 있는 전문 한국어 학습기관이다. 그러나 광주한글학교는 사설운영단체이어서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교재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어 전문가도 부족하여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동포를 교사로 쓰고 있었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소속의 기관으로 원장과 파견 교사(현직 교사), 그리고 현지 고용 직원 등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민속 등을 강의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의 역사, 민속 등을 강의하고 있었으나 유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지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한다.

파견 교사는 전공을 불문하고 선발하므로 한국어나 한국의 문화, 역사, 민속 등을 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실정이다. 현재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의 원장은 국문학을 전공하였으나, 파견 교사는 공업과 기술 과목을 가르치던 공과대 출신의 교사이다. 현지 동포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고, 또 한국어에 대하여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역사, 민속, 지리 등을 가르쳐도 큰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이들 과목과 관련이 없는 교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파견 교사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한국어 교육에 있는 만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장

과 파견 교사 모두 한국어를 전공한 우수한 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파견 교사의 수도 늘려야 한다. 원장과 파견 교사 1명, 현지 고용 동포 직원 2명과 동포 강사 2명 등 모두 6명이 강의를 진행하지만, 동포 교사들은 간단한 회화나 기초 어휘 학습에만 치중할 뿐, 한국어의 문법, 문학, 역사, 문화, 지리 등을 강의하기는 역부족인 것이다. 또한 원장과 파견 교사 두 명으로는 갖가지 행정 업무와 수업(한국어를 비롯하여 문학, 역사, 문화, 지리 등)을 담당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충실한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지만 교재의 부족은 예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큰 문제이다. 교재의 양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지 동포들이 기초부터 고급수준까지 한국어를 익힐 적당한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하겠다.

양적인 면에서의 문제점은, 다양한 한국어 관련 서적을 현지에 보내기에는 적지 않은 발송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화물로 타슈켄트까지 부칠 경우, 1 Kg당 운임이 \$4.8로 매우 비싼 편이다(우리 원의 경우 약 160Kg의 서적을 부치는 데 화물회사 국내운임과 수수료를 합해 약 670,000 원이 소요되었다). 앞으로 발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현지에 충분한 양의 교재를 보내야 할 것이다.

내용면에서의 문제점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도 쉬운 내용의 회화·문법 교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 원의 '한국어 연수 교재'는 중앙아시아의 동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문법과 언어예절의 일부를 제외한 한국어의 역사, 맞춤법, 표준어, 국어순화, 남북한 어휘의 비교 등은 그 내용을 이해할 동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지역 동포들의 한국어 능력에 알맞는 내용의 교재가 편찬되어야 한다. 교재의 종류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동포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어의 기초 문법과 회화, 조사와 어미의 활용 용례집, 각종 문형에 대한 용례집, 현지 방언과 표준어 비교, 한자어 풀이집, 외래어 대역집, 관용구·속담 풀이집,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러시아어의 한글 표기법, 러한·한러 사전 등)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므로 컴퓨터와 주변 소모품 등을 제공하여 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VTR과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등을 제공하여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한글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의 민속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각종 민속

늘이기구, 동화책 등을 보급해야 할 것이다.

## 8. 결론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러시아연방에서 독립한 국가로, 아직 많은 것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경제 사정 또한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도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야기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부정부패와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 등 과거의 악습이 아직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 동포들은 이전부터 현지에 적응하여 현지 주민으로서의 주권과 생활을 보장 받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약간의 차별이 있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우즈베크인들과도 잘 화합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현지 동포들은 지역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서부터 러시아어를 배웠고 또한 러시아어를 모어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 이후, 한-우즈베크 수교가 이뤄지고 양국 정상의 방문 등으로 현지 동포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익히려는 동포들과 현지인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일 것이다. 오랫동안의 지역적·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와 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가 많은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어를 기억하는 동포들은 일부이고 대부분의 동포들은 러시아어를 모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을 통하여 동포들에게 한국어의 이질적 요소와 동질성을 일깨워 주어서, 민족의 동질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또한 우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각종 기업과 무역상의 진출로 인한 고용 창출의 증대, 이로 인한 동포들의 생활 수준 향상, 안정된 사회적 지위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어문규범의 영향을 받아왔던 현지에 우리의 어문규범을 전파하여, 이질화되어 가는 언어 현실을 일깨워주고 남북한 어문규범의 통일을 위한 기초 작업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현지 동포들은 우리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반기며 가슴 뭉뚱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발전된 한국을 조국으로 여기려는 생각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교육원과 같은 한국어 학습 기관에는 연수반 개설 때마다 많은 동포들이

수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원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중앙아시아의 동포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